

## 대만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대학생들의 창의적 영어 학습활동에 관한 인식 연구

노승빈  
루터대학교

**Roh, Seungbin. (2012). A stud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regarding creative English learning activities through comparing Taiwa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13(4), 315-343.**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methods of three different countries (Korea, Taiwan, and Japan). To do so, this study provided the examples of 19 English learning activities, which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reigns (convergent and divergent English learning activities). Then, this research asked students to response what your opinions are by marking one of 5 answers (from strongly agree to strongly disagree). Nine convergent English learning activities (multiple choices, matching items, etc.) are that it leads to a single "best" answer, and thus leaves no room for ambiguity. Answers are either right or wrong. On the other hands, ten divergent activities (compare & contrast, unusual uses, etc.) lead to a variety of answers in situation where more than one answer is acceptable. Approximately 150 college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students strongly prefer divergent English learning activities over convergent activities, and they regard these activities as more effective in facilitating creativity in English classes. Nonetheless, other than brainstorming, which is a divergent activity, Korean students usually use convergent activities (grammar drills, multiple choices, etc) in their English learning. True/false and either/or questions are rarely used by Korean students. On the other hand, Japanese students prefer convergent English learning activities and they never use divergent activities in their learning. In the case of Taiwan students, they acknowledged the effectiveness of divergent English learning activities but they never use them in their learning.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eight proposals for Korean English education as well as those of the other two countries

[learning strategies/divergent English language activities/  
학습전략/발산적 영어 학습활동]

## I. 서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중 특히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은 영어의 중요성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하며 교육 정책적으로 글로벌 언어로서의 영어교육의 활용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Butler, 2004, 2007; Butler & Iino, 2004; Carless, 2002, 2003, 2006; Igawa, 2007; Nunan, 2003; Su, 2006). 또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영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점수들을 각 나라의 사회와 교육분야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일본 및 대만 대학생들은 전공 이외에도 심도 있는 영어 학습을 통하여 영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는 현실이다(Honna & Takeshita, 2005; McFarlane, 2010). 예를 들자면, 대만 대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상당부분은 다양한 영어 시험들(General English Practical Test, ILETS, TOEIC 및 TOEFL)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에 집중되어있다(C. Shin, 2008). 이러한 시험 중심의 영어 학습은 정답과 오답을 찾아내는 기술적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만 대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시간에 “What is the right answer?”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현실이다. 대만 영어수업에서 정답은 곧 높은 점수를 의미하게 된다. 대만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영어회화 과정 또는 다른 영어 수업에 영어회화를 끼어놓은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 대학생들에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최대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어 회화 능력을 검증하는 다양한 시험들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전달 보다는 정확하고 규격화 된 영어회화 문장들을 암기하고 질문에 정확한 정답이 될 수 있는 대답을 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만 대학들의 영어 수업들은 지나칠 정도로 영어회화에서 조차도 정답과 오답만을 찾아내는 훈련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영어의 기능별 사용법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McFarlane, 2010).

또한, 일본 대학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험위주의 영어교수 및 학습은 일본 교육사회에서 영어 자체의 창의적 외국어 학습이라기보다는 생활영어, 무역영어, 대학입학시험, 토플 및 토익과 같은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설학원의 과열로 영어는 그야말로 시험을 위한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렇게 대학을 입학한 대학생들의 영어실력은 기초적인 영어 말하기, 읽기 조차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영어의 기초능력 부족으로 인해 고분분투하고 있다(Ikegashira, Matsumoto & Morita, 2009). 우리나라 교육체제 또한 점수 경쟁을 조장하며 그로 인한 기형적인 교육열, 그리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무한 경쟁, 따라서, 우리 교육은 언제나 정답을 누가 많이 빨리 정확하게 맞추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병민(2008)은 이러한 경쟁에서는 결국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 문제를 푸는 데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설명한다. 즉,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무엇이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보다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학생이 인정받는 교육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수 위주의 교육 분위기는 대학에서도 영어 과목을 신입생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며, 학교에 따라 졸업필수 과목으로써 졸업 전 해당 학교가 요구하는 공인기관의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동아시아 3개국들 모두는 이러한 영어교육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의미적이든 기술적이든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Butler, 2004; Nunan, 2003). 다시 말하자면, 한국을 비롯한 대만과 일본 대학생들의 영어학습활동은 상당부분 정답을 찾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쪽으로 편중된다면 암기와 반복을 통한 영어 학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목표는 영어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대학과 직장을 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영어 학습 환경 속에서 영어의 창의적 학습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오로지 정답만을 찾고자 하는 영어학습의 기술습득과 단기적 암기는 언어의 근본적인 원리 및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Snow(2000) 교수는 대학생들과 같은 성인들이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영어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기계적 학습하는 경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어교육현장에서 창의력은 영어교수 및 학습과 상당부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대신 창의력 향상이라는 것은 모국어 및 그 외 타 교과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부연 설명하자면, 많은 영어 교사들은 교실 현장에서 영어의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급한 현실이라고 이해한다. 때문에 영어의 기초적 능력을 향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다지 창의적 활동 및 사고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손중선, 김정삼, 2007).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최근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보고서의 ‘교과 교육에서의 창의성 신장 교육’에 관한 내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음악, 미술) 및 체육 교과에서의 창의성 신장 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보고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영어에 관한 창의성 신장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서 창의력은 언어적 측면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언어 능력의 부족 및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표출 시키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영어학습자는 현재 자신의 영어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영어로 부끄럼 없이 또는 자신 있게 표현하고 교사 및 동료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고 및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창의력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강한 동기유발과 숨겨진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인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손중선, 김정삼, 2007). 단순히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언어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암기하고 반복하여 습득하기 보다는 언어라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창의적 영어 학습활동의 성향 및 인식(수렴적 및 발산적 사고기법)를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향한 영어 교육정책과 입시 및 시험점수 위주의 유사한 영어 교육 현실 속에 있는 대만과 일본의 대학생들의 영어학습활동 성향과 인식 또한 조사하여 한국 대학생들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본다. 이와 같은 비교 대조를 통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활동 성향과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의 방향성과 보안책 및 대안에 관하여 논의 및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영어 학습활동들을 선호 또는 비 선호 하는지? 둘째,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영어 학습활동들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셋째,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영어 학습활동들이 주입식 학습과 암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넷째,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영어 학습활동들을 쉽게 또는 어렵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섯째, 한국 대학생들은 어떤 영어 학습활동들을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 여섯째, 위의 각 연구문제들에 관한 응답들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활동들에 관한 성향과 인식들을 대만과 일본 대학생들의 응답과 비교 및 대조하여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등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창의성이란?

교육현장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 명의 사람들에게 창의성의 개념에 대하여 답하도록 한다면 아마도 백 개의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Bowkett, 2007).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이란 개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자질 또는 재능으로서 본 경향이 많았지만, Guilford(1968)는 창의성이란 특별한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능력이나 재능이라기보다는 지적 능력의 복합체로 간주하였다. 그는 창의성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창의성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Torrance(1962)가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창의성이란 아무도 전에 보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전통적인 사고와 틀에 박힌 양식을 부수고 중심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험적인 사고 및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행동은 우리를 창안, 발견, 호기심, 상상, 경험, 탐험 등을 통하여 우리가 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보다 더 나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 외에도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Thurston과 Runco(1999)는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재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새로움이라고 말하였고, Osborn(1963)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으로서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새롭고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정의한다. Urban(1997)은 창의성은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적인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위의 학자들이 정의한 창의성의 개념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발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창의적 사고 행동에 가치를 두고 지지하는 교육현장의 분위기와 교과과정 및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을 통하여 한층 더 동기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성이란 특정 및 소수의 학생들만이 소유한 천부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적 능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Guilford, 1968).

## 2. 수렴적 사고행위와 발산적 사고행위

영어의 기초적 능력의 향상은 오류-수정을 통한 정확성이 중요시되며(Hendrickson, 1976) 그 정확성을 바탕으로 명백하게 정의된 질문에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렴적인 사고행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Cropley, 2006). 수렴적인 사고는 속도, 정확성, 논리 등에 초점을 두며 정보를 축적하고, 친숙한 것을 인식하고, 고정된 기술을 재적용하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보존한다. 따라서 수렴적인 사고는 이미 만들어진 정답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저장된 정보로부터 사실을 기억하여 논리적인 의사결정 전략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Cropley, 2006). 따라서 수렴적인 영어교수 및 학습은 문제가 요구하는 결정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Birckbichler, 1982). 청화교수법은 외국어 교실에서 의미 보다는 구조와 형태에 집중하며 오류수정에 의한 정확성이 중요한 교수 및 학습 목표이다(Finocchiaro & Brumifit, 1983).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사고행위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이며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수렴적인 사고행위는 교사와 교재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사고행위이다. 답은 정답이거나 오답일 뿐이며 수렴적 사고행위에서는 답의 모호성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Cropley, 2006). 따라서 영어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수렴적인 사고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어 활동은 문법연습, 사지선다형, 연결하기, 문장순서 배열하기, 관련 없는 것 빼기, 예/아니오 질문, 참/거짓 질문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Birckbichler, 1982).

반면 수렴적인 사고행위와 상응하는 발산적인 사고행위는 아이디어를 사정, 개발, 선택하기 위한 기법이 아니라 아이디어들을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생성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다(김영채, 2007). 이러한 이유로 인해, Guilford(1968)는 발산적인 사고행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창의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발산적 사고행위는 여러 다른 방향으로 정해진 “길을 벗어나거나,” 둘째, 문제-해결 상황 속에서 방향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셋째, 하나 이상의 답이 있는 곳에서 다양한 답변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 Guilford(1968)는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산적 사고행위의 다양한 요소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체계화 하였다. 첫째, 유창성은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생각들과 의견들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때 측정 및 평가되는 것은 내용의 질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수와 양이다. 두 번째, 유연성은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능력이다. 세 번째, 정교성은 생성된 아이디어를 보다 정확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며 의미를 보강 및 첨가하여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보다 정교하며 미화하는 능력이다. 네 번째, 독창성은 독특하며, 틀에 박히지 않으며, 동시에 영리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Guilford(1968)는 위의 네 가지 범주 이 외에도 문제에 대한 민감성,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재 개념화하는 능력, 복잡한 것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라고 설명한다. 발산적 사고행위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영어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문장 채우기, 목록 열거하기, 문장 완성하기, 역할극, 문제 해결하기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위의 활동들은 발산적인 능력을 함양하며 다양한 의견과 답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Birckbichler, 1982).

위의 두 가지 사고행위들과 언어 생산능력들 모두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렴적 사고행위와 발산적 사고행위는 반드시 함께 사용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영채, 2007; Cropley, 2006). 수렴적인 사고행위와 생산능력은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영역에서 필요하며 발산적인 사고행위와 생산능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미전달 및 생성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산적 언어능력은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선형지식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노승빈, 2007).

### 3.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영어의 기초 능력 함양을 우선 시 하는 영어 교실 현장 속에서 창의적 사고개발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손중선, 김정삼, 2007). 또한, 외국어로서의 영어수업의 교과내용은 다른 미술, 음악, 과학 그리고 국어 교과목과 달리, 기초영역(문법, 단어, 발음 등등)에 초점을 두어 수업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양용철, 1999).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기초 지식 함양과 창의성 개발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습자의 언어적 기초지식은 창의적 잠재력 향상과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Gardner, 1993; Hayes, 1989). 개인의 창의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기초지식과 어느 정도의 “침묵 기간”이 필요하며 준비가 다 된 다음에야 비로소 학습자의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사고와 행동이 완성될 수 있기 기틀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Gardner, 1993).

영어교육 분야에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발산적 교수-학습과정을 조사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9가지 영어교육 목표들을 제시하면서 영어 학습을 통한 추론,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외국어 영역에서도 주요한 화두로 창의성에 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강조되어 최근에 적지 않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창의적 발산적 영어 교수-학습을 통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키고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성의 개념만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영어교과 교육을 통해 실현 가능한 창의성 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많은 연구논문들이 창의사고기법 활용하여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uilford(1968)와 Torrance(1962)가 교육 전 분야에서의 창의성 개념을 세우고 이론과 실재를 체계화 하였다면, 외국어 분야에서 특히 발산적 사고 행위 및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적 학습모형을 제시 한 것은 Birchbichler(1982)이다. 그는 Guilford(1968)의 이론에 입각하여 창의성이란 수렴적 사고행위 보다는 발산적 사고행위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Guilford의 발산적 사고행위의 네 가지 범주들의 속성에 적절한 영어 학습활동들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동기유발을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임보화(2009)는 영어교육 자료로서의 영시텍스트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영시 교육의 효과와 창의성 교육의 특성을 연관 지어 창의적이며 발산적 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영시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영어교육 현장에서 영시는 적합한 자료로 간주되지 못했으며 해석과 분석의 대상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영어 교사 및 학생들은 어려워하고 거부하였던 현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창의적이며 발산적 사고기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학습자에게 보다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활동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시켜 준 연구이다.

김진영(2008)은 창의성 신장과 교과 영역을 통합하여 영어 쓰기 영역에서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영어 쓰기 영역은 학습자의 창의적이며 종합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적합한 기능이다. 따라서, 영어 쓰기의 내용은 학습자마다 다양하며 독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답이 정해져 있거나 한정될 수 없고 가능한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한다. 이러한 속성은 발산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발산적 사고기법이 평가 면에서 상당부분 주관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 Guilford(1968)가 제안 한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및 독창성에 근거한 평가 분석표를 만들어 학습자의 영어 쓰기를 발산적 사고기법의 기준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연구이다.

오수정(2012)은 창의사고기법을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를 영어 교과서의 소재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발표 및 토론 등의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창의사고기법 활용 영어 수업이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이다.

민현정과 함정현(2011)은 대학생 영어의 창의적 신장을 위해 60명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수준별 영어다독 활동을 적용하여 대학생 영어의 창의적 향상, 특히, Guilford(1968)가 제시 한 네 가지 범주 중 유창성과 유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준별 영어다독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며 다양한 장르의 영어도서를 다독한 결과 실험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언어적 유창성이 높게 향상 되었다. 또한 수준별 영어다독 활동 중 장르를 통제하여 다독을 한 비교집단보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영어도서를 다양한 장르로 다독한 실험집단이 언어적 유연성 향상 또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승빈(2007)은 영어교육에서 창의적 사고개발을 위한 교수 및 학습전략을 위하여 발산적 영어교수 및 학습기법을 영어수업과 교과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창의적 영어수업의 내용은 반드시 수렴적이며 발산적 교수-학습과정이 필요하며, 둘째 발산적 교수-학습과정은 반드시 Guilford가 제안한 단계별 범주인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 및 독창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발산적 영어학습활동들은 다양한 학습 활동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넷째, 발산적 영어학습 활동들은 영어 학습자들의 선형지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 및 삽화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섯 째, 발산적

영어학습활동들은 정확성을 목표로 하는 오류-수정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발산적 영어학습활동은 반드시 동료 학습자들과의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들과의 발화기회를 많이 부여하기 위하여 소집단 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창의적 영어 수업은 수렴적 언어능력이 평가 되듯이 학습자의 발산적인 아이디어와 이해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창의성을 영어 교과과정에 통합하고자 하는 제안을 바탕으로 S. Roh(2009, 2011)은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연구 조사를 실행하였다. 첫째, 영어교사들의 관점에서 교실현장에서의 창의성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개의 각각 다른 영어 교사집단들(학교 영어교사, 학원 영어교사, 학원과 학교 원어민교사)에게 12가지 창의성 관련 교실환경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는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격려하는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원 영어교사와 학교 영어교사 순이었다. 또한,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9개의 설문 문항들이 교사집단과의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어 교실현장에서 창의적 분위기와 환경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영어 교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격려하고 학습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존경과 가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제안한다. 둘째, 위의 세 개의 다른 영어 교사집단의 영어교수활동 및 기법(수렴적 및 발산적)들에 관한 효과를 각 교사집단에게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는 한국인 영어 교사집단들은 수렴적인 영어 교수활동들을 선호하는 반면 원어민 영어 교사집단은 발산적 영어교수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어 교사집단들은 발산적 영어교수활동들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법들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발산적 기법이 한국의 영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 56명, 일본 테이쿄 대학(Teikyo Univ, Hachioji campus)의 대학생들 50명, 그리고 대만 명추안 대학(Ming Chuan Univ.) 대학생 50명으로 총 156명이 참여하였다. 각 국가별로 대략 비슷한 숫자인 5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도 비슷하게 참여하였다.

국적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여성이 각각 51.8%, 66.0%, 일본은 남성이 58%로 더 많은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대별 응답비율은

한국과 대만은 22세 이상 24세 25의 연령대가 각각 33.9%, 44.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일본이 19세 이상 21세 이하의 연령이 74.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년별 응답비율을 보면, 한국은 3학년 학생이 35.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일본, 대만은 4학년 학생이 각각 54.0%, 32.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다.

표 1  
참가 대학생들의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

구분	한국(n=56)		일본(n=50)		대만(n=50)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7	48.2	29	58.0	17	34.0
성별 여	29	51.8	21	42.0	33	66.0
연령 19세 미만	0	0.0	6	12.0	8	16.0
연령 19세 ~21세	14	25.0	37	74.0	18	36.0
연령 22세 ~24세	19	33.9	6	12.0	22	44.0
연령 25세 ~27세	17	30.4	0	0.0	1	2.0
연령 28세 ~29세	6	10.7	0	0.0	1	2.0
연령 30세 이상	0	0.0	1	2.0	0	0.0
학년 1학년	6	10.7	3	6.0	9	18.0
학년 2학년	17	30.4	9	18.0	14	28.0
학년 3학년	20	35.7	11	22.0	11	22.0
학년 4학년	13	23.2	27	54.0	16	32.0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개국 대학생들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설문지들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미리 일본어와 대만어로 번역 제작하여 각국의 대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첫째 부분은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인적 사항들(이름, 국적, 성별, 나이, 학년, 및 전공) 외에 주당 영어학습시간 등을 포함시켰다.

둘째 부분은 대학생들에게 19개의 다양한 영어 학습 활동들을 하나씩 차례로 학습활동들의 예문을 소개하고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19개의 영어 학습 활동들 중 앞의 9개는 수렴적인 영어 학습 활동들이며 나머지 10개는

발산적인 영어 학습 활동들이다. 두 번째 부분은 6개의 객관식 질문들로 구성되어었는데 총 19개의 영어 학습 활동들로부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창의적인 학습방법, 사용하기 쉬운 것 또는 어려운 활동들이 무엇인지 등을 응답 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영어 학습방법 및 활동 선호도 조사는 19개 항목으로 5점 만점(1에 근접할수록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방법 및 활동으로 선호하며 5에 근접할수록 비선호를 나타냄) 척도로 분석하였다. 부록의 설문지를 참조해 보면 각각의 19개의 영어 학습방법 및 활동의 예문을 대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각의 영어 학습활동이 효과적인 활동인지를 질문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각각의 영어 학습활동의 선호도를 질문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영어 학습활동에 관한 예문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19개의 영어 학습활동들을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다.

**표 2**  
19개의 수렴적 및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
문법연습(Grammar Drills)	비교대조하기(Compare & Contrast)
사지선다형(Multiple Choices)	독특한 사용구상(Unusual Uses)
연결하기(Matching Items)	목록 열거하기(List-Making)
참/거짓 질문(True/False Questions)	문장 채우기(Sentence-Builder)
예/아니오 질문(Yes/No Questions)	말 바꿔 표현하기(Paraphrasing)
양자택일 질문(Either/Or Questions)	자유롭게 생각하기(Brainstorming)
단답형 질문(Single-Answer Completion)	역할극(Role-Playing)
문장순서 배열하기(Scrambled Sentences)	문장 완성하기(Sentence Completion)
관련 없는 것 골라내기(Dehydrated Sentences)	문제 해결하기(Problem Solving)
	반박하기(Contradiction)

셋째 부분은 총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들은 19개의 영어학습활동들 중 학습자 자신이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활동들과 선호하지 않는 활동들을 또한 사용하기 쉬운 것 또는 어려운 영어 학습활동들, 창의성을 개발하는 영어 학습활동들, 주입식 위주의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영어 학습활동들 등등 각각 3개씩 우선 순위를 두어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한국 수도권에 위치한 두 개의 대학교와 일본과 대만의 대학교 각 한 곳씩을 선택하여 하였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테이쿄 대학의 대학생들과 대만의 경우 명추안 대학의 대학생들을 또한 무작위로 선발하여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한국과 대만 대학생들의 경우는 2012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까지 설문지법이 실행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그 보다 좀 늦은 5월과 6월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PASW Statistics 18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빈도분석과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대학생들의 영어학습활동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주당 영어 학습시간

주당 영어 학습시간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시간 미만이 26.8%로 나타났으며, 일본 대학생들은 1시간 미만이 7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16.0%로 나타났고, 대만 대학생들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3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7.1%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생들이 주당 영어 학습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이 대만 대학생들, 그 다음이 일본 대학생들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주당 영어 학습시간

구분	한국(n=56)		일본(n=50)		대만(n=48)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시간 미만	15	26.8	39	78.0	6	12.5
1시간~2시간	11	19.6	8	16.0	16	33.3

2시간~4시간	18	32.1	1	2.0	13	27.1
4시간~6시간	7	12.5	1	2.0	3	6.3
6시간~8시간	1	1.8	0	0.0	4	8.3
8시간 초과	4	7.1	1	2.0	6	12.5

## 2. 19개의 문항들과 국가 간 비교분석 결과

19개의 영어 학습활동들과 동아시아 3개 국가들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한 결과(표 4 참조) 3개 항목(참/거짓 질문, 예/아니오 질문, 양자택일 질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항목들 모두는 국가들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도를 나타냈다. 즉, 16개 영어 학습방법들은 대학생들의 국적에 따라 인식과 선호도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들을 보여주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16개의 항목들 중 사지선다형(0.26,  $p < .05$ ), 연결하기(0.004,  $p < .01$ ), 그리고 문장 채우기(0.026,  $p < .05$ )를 제외 한 나머지 13개 항목들 모두는 강한 유의도인 0.000,  $p < .001$ 의 수치를 보여 주었다. 또한 사후검증을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 일본과 대만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문항에 따라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차이<sup>1</sup>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6개의 영어 학습방법을 영어 교육현장에서 사용 및 활용할 때 각 국가들의 상황과 분산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16개 영어 학습방법들과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간의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항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scheffe검증결과
문법연습	156	10.114(.910)	11.120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사지선다형	156	4.236(1.134)	3.736	.026*	일본-대만간 차이
연결하기	156	6.103(1.075)	5.679	.004**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단답형 질문	156	16.271(1.075)	15.143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문장순서 배열하기	156	16.536(1.310)	12.625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관련 없는 것 빼기	156	12.756(1.149)	11.103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sup>1</sup> 차이 유형: (1) 세 국가 간 모두 차이, (2) 한국과 (대만 및 일본), (3) 차이 없음. 즉, '한국-대만, 일본-대만 간에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응답 유형이나 수치가 비슷하고 두 국가들은 각각 대만과의 응답 유형과 수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

비교/대조하기	156	17.379(1.075)	16.171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독특한 사용구상	156	21.206(1.184)	17.906	.000***	세 국가간 모두 차이
목록 열거하기	156	13.255(.989)	13.395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문장 채우기	156	3.797(1.011)	3.756	.026*	일본-대만간 차이
말 바꿔 표현하기	156	23.238(.913)	25.457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자유롭게 생각하기	156	35.349(1.054)	33.545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역할극	156	16.797(1.006)	16.694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문장 완성하기	156	26.646(.816)	32.672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문제 해결하기	156	15.385(1.013)	15.188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Debate	156	28.716(1.018)	28.199	.000***	한국-대만, 일본-대만간 차이

### 3. 효과적인 영어 학습방법 및 활동 선호도 조사

19개의 영어 학습활동들의 각 국가별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활동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중 1위부터 3위 까지를 선택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 대학생들은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기(1.98)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 반박하기(2.02)와 세 번째로는 말 바꿔 표현하기(2.12)를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활동들 모두는 발산적 사고행위를 요구하는 활동들로서 한국 대학생들은 정답을 하나만 찾는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 보다는 발산적 활동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비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는 연결하기(2.88)를 선택하였다. 아마도 한국 대학생들은 이 영어 활동이 대학생 수준의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같았다.

일본 대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참/거짓 질문(2.38)이며 그 다음으로는 양자택일 질문(2.62)과 사지선다형(2.7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대학생들이 선택한 위의 세 가지 활동들은 모두 하나의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비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는 비교/대조하기(3.48)를 선택하였다. 도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독특한 사용구상(3.44)과 자유롭게 생각하기(3.44)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대학생들은 모두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가장 비효과적인 활동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대학생들은 단답형 질문(1.98)을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유롭게 생각하기(2.02)와 역할극(2.02)을 동시에

선택하였다. 세 번째로는 문법연습(2.02)을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만 대학생들은 수렴적 및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들 모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없는 것 빼기(2.62)를 가장 비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대학생들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일본 대학생들의 선택들이다. 한국 대학생들은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로 선택한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모두 수렴적인 활동들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대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활동들이 영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보는 반면, 한국 대학생들은 여러 개의 다양한 응답들이 나올 수 있는 발산적 활동들을 영어 학습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5

국가별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방법 및 활동 순위들과 가장 비효과적 활동

순위	한국	일본	대만			
순위	활동	평균 (표준편차)	활동	평균 (표준편차)		
1	자유롭게 생각하기	1.98(1.08)	예/아니오 질문	2.38(1.37)	단답형 질문	1.98(.66)
2	반박하기	2.02(1.04)	양자택일 질문	2.62(1.14)	자유롭게 생각하기	2.02(.87)
2	토론하기	2.02(1.04)	양자택일 질문	2.62(1.14)	역할극	2.02(.87)
3	말 바꿔 표현하기	2.12(1.04)	사지선다형	2.74(1.23)	문법연습	2.04(.75)
19	연결하기	2.88(1.09)	비교/대조 하기	3.48(1.15)	관련 없는 것 빼기	2.62(0.73)

#### 4. 영어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활동들

19개의 영어 학습활동 중에서 각 국가별 대학생 자신들이 영어 학습 시 사용하고 있는 활동을 세 가지씩 다중응답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문법연습(11.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사지선다형(10.5%), 자유롭게 생각하기(9.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들은 예/아니오 질문을 영어 학습활동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활동(18.8%)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지선다형(11.4%), 참/거짓 질문(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만 대학생들은 단답형 질문(18.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지선다형(17.0%), 문법연습(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3개국 대학생들 거의 모두는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중 사지선다형은 한국, 일본 및 대만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학습활동임을 알 수 있다.

**표 6**  
영어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활동들

순위	한국		일본		대만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1	문법연습	17(11.1)	예/아니오 질문	28(18.8)	단답형 질문	27(18.4)
2	사지선다형	16(10.5)	사지선다형	17(11.4)	사지선다형	25(17.0)
3	자유롭게 생각하기	14(9.2)	참/거짓 질문	16(10.7)	문법연습	18(12.2)

### 5. 영어 학습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활동들

영어 학습활동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활동들을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연결하기(13.0%)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참/거짓 질문(11.7%), 예/아니오 질문과 양자택일 질문을 각각 8.4%가 응답하였다. 위의 활동들 모두는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로서 한국 대학생들은 이러한 유형의 활동들은 대학 영어 수준보다는 더 낮은 단계의 영어 학습 수준에서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인지 하는 것 같았다.

일본 대학생들은 문장순서 배열하기(11.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이 관련 없는 것 빼기(10.1%)와 독특한 사용구상(8.1%)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장순서 배열하기와 관련 없는 것 빼기는 모두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이지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보기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문장순서 배열하기는 여러 개의 문장을 섞어놓고 이야기의 상식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 하나만 이해할 수 없으며 전체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없는 것 빼기는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주제문과 관련 없는 것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제시된 보기들과의 연관성도 이해해야 정답을 찾아 낼 수 있는 학습활동이다. 따라서 일본 대학생들은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 중에서 보다 복잡하며 정답 이외의 것도 이해해야 하는 활동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대학생들은 반박하기(13.4%)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영어 학습활동으로 20명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말 바꿔 표현하기와 역할극을 각각 9.4%로 영어 학습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활동들로 응답하였다. 위의 활동들 모두는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이다.

표 7  
영어 학습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활동들

순위	한국	일본	대만			
순위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1	연결하기	20(13.0)	문장순서 배열하기	17(11.4)	반박하기	20(13.4)
2	참/거짓 질문	18(11.7)	관련 없는 것 빼기	15(10.1)	말 바꿔 표현하기	14(9.4)
3	예/아니오 질문	13(8.4)	비교/대조 하기	12(8.1)	역할극	14(9.4)
	양자택일 질문	13(8.4)	Compare & Contrast	12(8.1)	role-playing	14(9.4)

### 6.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학습활동들

3개국 대학생들에게 19개의 영어 학습활동들 중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3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기(16.1%)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역할극(11.6%), 문제 해결하기(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중 자유롭게 생각하기는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 1순위로 선택하였고 영어 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동 3위로 선택한 활동이다. 그리고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활동 1순위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하기 활동의 중요성을 영어 학습에서 인지하고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생들이 선택한 위의 세 가지 활동들은 모두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들로서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에서 발산적인 학습활동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지하였다.

일본 대학생들은 문장순서 배열하기(12.1%)를 창의성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련 없는 것 빼기(10.7%), 비교/대조하기(8.1%) 순으로 선택하였다. 문장순서 배열하기와 관련 없는 것 빼기는 일본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활동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활동 1위와 2위였다. 즉, 일본 대학생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영어 학습활동들, 즉, 복잡하고 다소간 난이도가 있으며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활동들을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대학생들 또한 한국 대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기(17.7%)를 가장 많이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영어 학습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역할극(13.6%), 말 바꿔 표현하기(10.2%)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 세 가지 활동들 역시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이며 대만 대학생들 또한 영어 학습에서 발산적 사고행위를 창의성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 흥미로운 결과는 대만 대학생들은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 2순위로 선택한 자유롭게 생각하기와 역할극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과 그 내용이 일치 한다. 그러나 영어 학습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말 바꿔 표현하기와 역할극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학습활동들이라고 선택하였다.

**표 8**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학습활동들

순위	한국		일본		대만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1	자유롭게 생각하기	25(16.1)	문장순서 배열하기	18(12.1)	자유롭게 생각하기	26(17.7)
2	역할극	18(11.6)	관련 없는 것 빼기	16(10.7)	역할극	20(13.6)
3	문제 해결하기	16(10.3)	비교/대조 하기	12(8.1)	말 바꿔 표현하기	15(10.2)

### 7. 암기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어 학습활동들

3개국 대학생들에게 19개의 영어 학습활동들 중 암기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3개씩 선택하도록 하여 다중응답 결과로 한국 대학생들은 문법연습(11.7%)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문장 채우기(8.4%)와 자유롭게 생각하기(8.4%)를 동시에 선택하였다.

일본 대학생들은 사지선다형과 문장 채우기를 각각 8.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문법연습과 관련 없는 것 빼기(각각 8.1%), 및 문장순서 배열하기와 독특한 사용구상(각각 7.4%) 순이었다.

대만 대학생들은 단답형 질문(17.7%)이 가장 많이 암기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영어 학습활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법연습(15.6%), 연결하기(8.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대학생들의 암기학습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활동의 공통된 선택은 문법연습으로 나타났으며 3개국 대학생들 가운데 대만 대학생들만이 모두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을 선택하였다.

**표 9**  
암기학습과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활동

순위	한국		일본		대만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1	문법연습	18(11.7)	사지선다형	13(8.7)	단답형 질문	26(17.7)

문장 채우기						
2	문장 채우기	13(8.4)	문법연습 관련 없는 것 빼기	12(8.1)	문법연습	23(15.6)
3	자유롭게 생각하기	13(8.4)	문장순서 배열하기 독특한 사용구상	11(7.4)	연결하기	12(8.2)

8. 영어 수업 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영어 학습활동들

영어 수업 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학습활동들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로 한국 대학생들은 문법연습(12.9%)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참/거짓 질문(11%), 자유롭게 생각하기(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본 대학생들은 예/아니오 질문(18.8%)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법연습(16.1%), 참/거짓 질문(12.8%) 순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일본 대학생들은 모두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을 가장 쉽게 영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대만 대학생들은 역할극(13.4%)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기(10.7%), 문법연습(8.1%)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만 대학생들의 경우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발산적 영어 활동 선택비중이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 보다 더 많았다.

요약하자면, 3개국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문법연습을 가장 쉽게 영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 한국과 일본대학생들 참/거짓 질문을 공통으로 선택하였고 한국과 대만대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기를 공통으로 선택하였다.

표 10  
영어 수업 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영어 학습활동들

순위	한국		일본		대만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1	문법연습	20(12.9)	예/아니오 질문	28(18.8)	역할극	20(13.4)
2	참/거짓 질문	17(11.0)	문법연습	24(16.1)	자유롭게 생각하기	16(10.7)
3	자유롭게 생각하기	16(10.3)	참/거짓 질문	19(12.8)	문법연습	12(8.1)

## 9. 영어 수업 시 사용하기 어려운 영어 학습활동들

영어수업 시 사용하기에 어려운 영어 학습활동들에 관하여 설문 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문제 해결하기(12.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역할극(11.1%)과 반박하기(10.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선택한 역할극 학습활동은 대만 대학생들은 가장 사용하기 쉬운 학습활동이라고 한 것이 대조적이다.

일본 대학생들은 문장 완성하기(12.8%),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하기(11.5%), 반박하기(10.8%) 순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활동들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만 대학생들은 반박하기(15.4%)를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활동이라고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하기(11.2%), 참/거짓 질문과 말 바꿔 표현하기 활동들을 각각 7.0% 순으로 영어 수업 시 사용하기 어려운 활동들이라고 응답하였다. 참/거짓 학습활동은 한국 대학생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 활동이라고 응답하였고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에게 이 학습활동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대만 대학생들에게 참/거짓 질문이 사용하기 어려운 학습활동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대조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수업 시 사용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3개국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하기와 반박하기 활동들을 선택하였다. 대만 대학생들은 문제 해결하기를 1순위로 나머지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은 3순위로 선택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3개국 대학생들은 문제-해결하기 활동을 상당히 어려운 영어 학습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하기 활동은 유일하게 3개국 대학생 집단 중 한국 대학생들이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 학습활동으로 선택한 활동이었다. 또한, 반박하기 학습활동은 대만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활동들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활동은 곧 사용하기 어려운 학습활동으로 인식함으로써 대만 대학생들에게 반박하기 활동을 권장할 시 조심스럽게 이러한 성향을 고려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11

영어 수업 시 사용하기 어려운 영어 학습활동들

순위	한국		일본		대만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활동	빈도/명 (백분율%)
1	문제 해결하기	19(12.4)	문장 완성하기	19(12.8)	반박하기	22(15.4)
2	역할극	17(11.1)	문제 해결하기	17(11.5)	문제 해결하기	16(11.2)
3	반박하기	16(10.5)	반박하기	16(10.8)	말 바꿔 표현하기 참/거짓 질문	10(7.0)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조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주당 영어 학습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가장 많이 하는 학습시간이었으며 이는 같은 학습 시간량(2~4시간 사이)에서 대만 대학생들의 5%정도 많았으며 일본 대학생들 보다는 무려 16배 정도 많은 학습 시간이었다. 영어 학습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대만과 일본 대학생들 보다 더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자유롭게 생각하기, 반박하기, 및 말 바꿔 표현하기)에 대해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인식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반면, 일본 대학생들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과 정반대로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들(비교/대조하기, 독특한 사용구상 및 자유롭게 생각하기)을 비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오히려 한 개의 정답만을 찾고자 하는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예/아니오 질문, 양자택일 질문, 및 사지선다형)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대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 보다는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영어 학습 시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반박하기, 말 바꿔 표현하기, 및 역할극)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들이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선호도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학생들은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자면, 문법연습과 사지선다형 활동들은 한국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학습활동들이다. 이것은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많은 유형의 테스트들이 수렴적 사고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이 이러한 활동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분석과 선행연구들은 상당 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발산적 영어학습방법들은 영어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개발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와 동기 유발을 촉진 시켜 영어 학습활동들을 통하여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은 영어의 다양한 영역들(말하기, 쓰기, 읽기 등)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창의적이며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들은 영어 교과과정에 통합되어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과 함께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영어 교육현장에서 창의적 및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은 선행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 적용될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과의 관련성을 숙지하며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들을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과 수업에 제시하고자 한다.

### 1. 한국 대학생들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대학생들이 대만과 일본 대학생들 보다 영어 학습활동에 있어서 발산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선호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교실과 수업현장에서도 다양한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이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답들이 공유되며 동료 및 급우들과 서로의 답을 존중하게 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답과 오답들로 구분되어 경쟁심과 우열의식을 조장하기 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답을 찾아 영어로 작성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격려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유창성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수 및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Guilford(1968)는 남들과 다른 학습자 자신의 독특하고 유별난 생각들과 의견들이 다른 어떤 한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발산적 사고행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영어 테스트의 형식도 발산적 생산능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일본, 및 대만 대학생들 모두는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인 사지선다형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들이 객관적 평가와 공정성을 가지기 위하여 대부분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여기에 준해 그들의 학습활동 및 방법도 따라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기, 반박하기, 그리고 말 바꿔 표현하기와 같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나타났다. 따라서 교실 현장에서 발산적 학습활동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어 수업들의 시험들과 공인된 영어 능력 검정시험들도 발산적 사고행위를 개발하는 형태의 시험들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 이 때, 공정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야 한다.

### 3.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어 학습활동들로 모두 발산적 활동들인 자유롭게 생각하기, 역할극,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등을 선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영어 교실현장에서 창의성 개발은 상당 부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차라리 창의성 개발은 국어, 미술,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과목들에서 다룰 소재이지 외국어 수업인 영어 수업에서는 아니라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창의성 개발은 영어

대만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대학생들의 창의적 영어 학습활동에 관한...337

교실현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창의성 개발로 인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동기유발, 숨겨진 언어능력 개발, 개인의 잠재적인 역량 개발 등과 같은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언어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과 동등하게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도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 4.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적용을 위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선호도가 높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한국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경과 배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노련한 교사의 기술, 같은 집단 내의 동료학생들의 능숙한 경험, 학생들의 실력에 따른 발산적 활동들의 사용, 그리고 이해 가능하며 도움이 되는 예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 대학생들은 설문응답에서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하기, 역할극, 그리고 반박하기와 같은 학습활동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위의 발산적 활동들은 영어 학습 초기에 사용되기 보다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강제적으로 끄집어내기 보다는 많은 유사한 예문들을 제시함으로써 집단 내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발산적 사고행위를 개발하기 위해 자유롭게 생각하기와 같은 영어 학습활동을 적극 권장 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자유롭게 생각하기는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영어 학습활동을 선택했으며, 창의성 개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 시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발산적 활동이며 영어 수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유롭게 생각하기는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수업 및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담이 없고 쉽게 접근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활동이므로 영어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학습활동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6.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사용 시 편중되기 보다는 다양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교실 현장에서는 사실상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사지선다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동이었다. 반면, 같은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 중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열거하기, 참/거짓 질문, 예/아니오 질문, 그리고 양자택일 질문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열거하기를 가장 비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열거하기와 같은 형식의 학습활동들은 대학생들 인식 속에서 기초 및 초보 단계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도 분명 영어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지선다형과 같은 활동만을 사용하는 데 있어 편중되기 보다는 그 외의 다양한 수렴적 활동들의 사용 또한 권장 및 촉진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개발도 권장될 필요가 있다.

#### 7. 일본 대학생들은 편중된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사용을 벗어나 발산적 학습활동의 활용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연구결과, 일본 대학생들은 지나치게 편중적으로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들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산적 활동들은 대부분 비효과적인 것이며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영어 교육현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로 발산적인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렴적인 활동들인 문장순서 배열하기와 관련 없는 것 빼기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대학생들의 지나치게 편중된 수렴적 영어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발산적 사고행위를 촉진시키는 활동들도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며 기대해 본다. 이때 발산적 활동인 비교/대조하기를 상당히 비효과적이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습활동들을 활용 할 때에는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8. 대만 대학생들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중요성을 인식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학습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만 대학생들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 한국 대학생들 보다는 덜 효과적인 인식하였고, 일본 대학생들 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하기, 역할극, 그리고 말 바꿔 표현하기와 같은 발산적인 활동들을 창의성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선택하였다. 따라서 대만 대학생들은 발산적 영어 학습활동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현장에서는 수렴적 활동들인 단답형 질문, 사지선다형, 그리고 문법연습과 같은 수렴적 영어 학습활동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대학생들은 발산적인

활동들인 반박하기, 말 바꿔 표현하기, 그리고 역할극을 영어 학습을 할 때 사용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 대학생들이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을 인식 속에서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실제 영어 교육현장에서 과감하게 사용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때 대만 대학생들은 사용하기 쉬운 발산적 활동들로 역할극과 자유롭게 생각하기를 선택하였고 사용하기 어려운 발산적인 활동들로는 반박하기,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말 바꿔 표현하기를 선택했으므로 발산적인 영어 학습활동을 활용 할 때 위의 선호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렴적인 영어 학습활동인 관련 없는 것 빼기를 상당히 비효과적이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 사용 시기와 방법을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영채. (2007). *창의력의 이론과 개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영. (2008). *창의성 향상을 위한 영어 쓰기 지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종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노승빈. (2007). 창의성과 영어교육의 통합을 위한 교과과정. *사고개발*, 3(2), 61-72.
- 민현정, 함정현. (2011). 대학생 영어의 언어적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 북클럽의 수준별 영어다독 활동을 통한 언어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1(2), 5-26.
- 손중선, 김정삼. (2007). 창의성과 초등영어교육: 단기기억 메커니즘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33, 305-328.
- 양용철. (1999). *교육의 종합적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오수정. (2012). *창의사고기법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말하기 수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 이병민. (2008). 선발을 위한 점수 위주의 영어교육이 문제의 본질이다. *오늘의 청소년*, 34, 2-8.
- 임보화. (2009). *창의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영시 지도안*.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보고*.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irckbichler, D. W. (1982). *Creative activities for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Bowkett, S. (2001). *100 ideas for teaching creativity*. New York: Continuum.

- Bowkett, S. (2007). *100+ ideas for teaching creativity*. New York: Continuum.
- Butler, Y. (2004). What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do elementary school teachers need to attain to teach EFL? Case studies from Korea, Taiwan, and Japan. *TESOL Quarterly*, 38(2), 245-278.
- Butler, Y. (2007). Foreign language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in Japan: Searching for solutions amidst growing diversification. *Current Issues in Language Teaching*, 8, 129-147.
- Bultler, Y., & Iino, M. (2004). Current Japanese reforms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The 2003 "Action Plan." *Language Policy*, 4, 25-45.
- Carless, D. R. (2002). Implementing task-based learning with young learners. *ELT Journal*, 56, 389-396.
- Carless, D. R. (2003).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ask-based teaching in primary schools. *System*, 31, 485-500.
- Carless, D. R. (2006). Collaborative EFL teaching in primary school. *ELT Journal*, 60, 328-354.
- Cropley, A. (2006). In praise of convergent thinking.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8(1), 291-404.
- Finocchiaro, M., & Brumifit, C. (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 Guilford, J. P. (1968). *Intelligence, creativity,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San Diego: Robert R. Knapp.
- Hayes, J. R. (1989). *The complete problem solver*. Hillsdale, NJ: Erlbaum.
- Hendrickson, U. S. (1976). *The effects of error correction treat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Honna, N., & Takeshita, Y. (2005).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Japan: policy plans and their implementations. *RELC Journal*, 36(3), 363-383.
- Igawa, K. (2007). Issues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at Korean elementary schools. *Bulletin of Shitennoji Kyoto University*, 44, 219-236.
- Ikegashira, A., Matsumoto, Y., & Morita, Y. (2009). English education in Japan: from kindergarten to university. In R. Reinelt (Ed.), *Into the next decade with 2<sup>nd</sup> FL teaching* (pp. 16-40). Matsuyama, Japan: Rudolf Reinelt Research Laboratory.
- McFarlane, R. (2010). Transcending Numerical Grading: The benefits of one on one assessment for learning English conversation in a Taiwanese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17(2), 171-180.
- Nunan, D. (2003). The impact of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on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ESOL Quarterly*, 37(4), 589-613.
- Osborn, A. F. (1963). *Applied imagination*. New York: Scribner.
- Roh, Seungbin. (2009, August). *On reconceptualizing creativity regarding the Korean*

- EFL education climate*. Paper presented at 7<sup>th</sup> ASIA 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Bangkok, Thailand.
- Roh, Seungbin. (2011). In praise of divergent teaching methods in Korean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7(1), 135-163.
- Shin, C. (2008). The General English Proficiency Test. *Language Assessment Quarterly*, 5(1), 63-76.
- Snow, C.E. (2000). Comment on "The federal bilingual education program" by Christine H. Rossell. In D. Ravitch (Ed.), *Brookings papers on education policy* (pp. 237-253).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u, Y. C. (2006). EFL teachers' perceptions of English language policy at the elementary level in Taiwan. *Educational Studies*, 32, 265-283.
- Thurston, B.J., & Runco, M. A. (1999). Flexibility. *Encyclopedia of Creativity*, 2, 729-733.
- Torrance, E. P.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Urban, K. K. (1997). Modeling creativity: the convergence of divergence or the art of balancing. In: J. Chan, R. Li & J. Spinks (Eds.), *Maximizing potential: lengthening and strengthening our stride* (pp. 39-50). Hong Kong: Social Sciences Research Centr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부록

### Questionnaire<sup>2</sup>

1. Name ( ): \_\_\_\_\_
2. Nationality ( ): Korean \_\_\_/Japanese \_\_\_/Taiwanese \_\_\_
3. Gender ( ): Male ( ) \_\_\_\_\_ / Female ( ) \_\_\_\_\_
4. Age ( ): Under 19 \_\_\_ / 19~21 \_\_\_ / 22~24 \_\_\_ / 25~27 \_\_\_  
28~29 \_\_\_ / Over 30 \_\_\_\_\_
5. Grade ( ): 1st \_\_\_ / 2nd \_\_\_ / 3rd \_\_\_ / 4th \_\_\_\_\_
6. Major ( ): \_\_\_\_\_
7. How many hours do you study English a week? ( )  
1) Under 1 hour 2) 1~2 hours 3) 2~4 hours 4) 4~6 hours 5) 6~8 hours  
6) Over 8 hours

(A)

- 1) **Grammar Drill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

<sup>2</sup> 영어로 된 설문지는 한국어, 일본어, 대만어로 번역되기 전 사용된 설문지로서 각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는 부록에 실지 않음.

-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2) **Multiple Choice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3) **Matching Item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4) **True/False Question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5) **Yes/No Question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6) **Either/Or Question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7) **Single-Answer Completion**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8) **Scrambled Sentence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9) **Dehydrated Sentence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0) **Compare and Contrast**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1) **Unusual Uses**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2) **List-Making**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3) **Sentences Builder**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4) **Paraphrasing**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5) **Brainstorming**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6) **Role-playing**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7) **Sentences Completion**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8) **Problem Solving**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 19) **Contradiction** is an effective activity for ESL class.  
① Strongly Agree ② Agree ③ Neutral ④ Disagree ⑤ Strongly Disagree

(B)

1. Select three activities you are using or prefer to use from the example introduced 19 activities (give numbers of activities in the example)

1) \_\_\_\_\_ 2) \_\_\_\_\_ 3) \_\_\_\_\_

2. Select three activities you are not using or do not prefer to use from the example introduced 19 activities (give numbers of activities in the example)

1) \_\_\_\_\_ 2) \_\_\_\_\_ 3) \_\_\_\_\_

3. Select three activities that encourage and develop students' creativity for ESL classes.

1) \_\_\_\_\_ 2) \_\_\_\_\_ 3) \_\_\_\_\_

4. Select three activities that improve students' abilities for rote learning and memorization in ESL classes.

1) \_\_\_\_\_ 2) \_\_\_\_\_ 3) \_\_\_\_\_

5. Select three activities that can be used easily for ESL classes.

1) \_\_\_\_\_ 2) \_\_\_\_\_ 3) \_\_\_\_\_

6. Select three activities that can be used difficultly for ESL classes.

1) \_\_\_\_\_ 2) \_\_\_\_\_ 3) \_\_\_\_\_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노승빈

루터대학교 신학인문학부 영어학전공

446-7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7번지

Tel: (031) 235-2041/ C.P.: 010-4562-6973

Email: sbroh@ltu.ac.kr

Received 15 August 2012

Revised 3 November 2012

Accepted 17 November 2012